

100개의 청사초롱, 경기전의 밤 수놓다

-행사는 9월 16일까지 5회 걸쳐

전 전주문화재야행이 특별기획해 운영하는 '달빛기행'이 최근 고요한 경기전의 밤을 100개의 청사초롱으로 아름답게 수놓으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달빛기행'은 문화재의 전승적 가치와 함유적 가능성 공유를 위해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에서 특별주간 프로그램 편성에 의해 기획됐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산책코스와 더불어 전통예술품공연을 결합해 한옥마을 일대의 운치를 색다르게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품격 문화재야행 투어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해 100명 한정인원이 모집됐다.

참가자들은 태조로 쉼터를 출발해 조선왕조본향으로서의 전주를 설명하는 중심 문화재인 오목대에서 한옥마을 전경을 감상하고, 골목길투어와 연결해 한옥마을 곳곳의 역사와 문화를 듣고 느끼며 경기전에 도착하는 전문해설사 동반 야간산책 코스로 진행됐다.

전주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겨냥한 여행상품에 신청해 수원에서 단체로 참여했다는 한 관광객은 "해설사와 함께 걸으니 문화재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전을 거닐던 중에 수복청(守僕廳)에서 만난 '뜻밖의 국악'은 호젓한 대금소리와 깊은 밤을 수놓는 가얏마 소리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던 넉넉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달빛기행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청사초롱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즈넉한 경기전의 밤을 비추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색다른 광경이었다.

지난 27일 개막야행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매월 1차례씩 진행되는 올해 전주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은 '수작(秀作)'을 모티브로,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조선왕조 개국의 주인공, 태조 이성계'를 메인 테마로 하는 선연적 무대로 만들어졌다.

전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태조 어진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행사 횃수를 지난해 2회에서 5회로 늘려 문화재 야간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개국의 의미를 지닌 경기전과 오목대를 행사 거점으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포함하는 오목정, 전주소리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은행나무정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서깊은 문화재,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고루 포진된다.

올해 전주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모티브는 '수작(秀作)'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경관을 무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 경륜과 패기로 똘친 전주의 예술가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시간여행을 펼친다. 전주 자체가 빼어난 작품이 되는 셈이다.

'수작(秀作)'은 빼어난 작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손수 만드는 수공예품을 뜻하는 '수작(手作)'과 차 한 잔을 권하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청유형의 '수작(酬答)'으로 읽히는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다.

특히, 4개 섹션 중 '모두의 수작'은 전주문화재야행이 준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문화재가 누구에게나 즐거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전시·체험·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이는 전주의 문화와 역사를 때로는 진중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보여주고 표현하고 만끽하며 전주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전주가 지닌 찬란한 역사문화적 인프라를 현대 속에서 다시 꽃피우게 하는 동시에, 한해 천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역사문화적 가치,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속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김경미 총감독은 "달빛기행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험형 여행상품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기획한 주말 상설 투어프로그램"이라며, "문화재야행의 목적성 및 도시문화정체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꾀함은 물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종합관광박람회인 제32회 한국국제관광전(KOTFA 2017)에 전주시와 공동 참여해 1일부터 4일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의 관광·여행·문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정보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전주문화재야행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한차례 열린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24일과 7월 22일, 8월 26일, 9월 16일을 포함해 매달 1회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중 특별주간 프로그램 '달빛기행'은 9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펼쳐진다.

주요코스는 태조로 쉼터에서 출발해 오목대와 경기전, 전통성당, 풍남문, 남부시장 야시장이다. 참가자에게는 청사초롱이 증정되며, 100명 한정 경기전 야간입장의 특혜와 국악공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이 살아있는 문화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재를 지향하며 시작한 행사로,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의 매력과 전통의 깊이, 풍부한 인프라를 인정받으며 문화재야행사업 18선에 선정됐다. /인재용 기자

모티브는 '수작(秀作)' '빼어난 작품'을 의미 언어적 유희도 담아

특별기획 '달빛기행'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코스·전통예술품공연 결합

달빛기행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청사초롱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즈넉한 경기전의 밤을 비추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색다른 광경이었다.

전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태조 어진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행사 횃수를 지난해 2회에서 5회로 늘려 문화재 야간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개국의 의미를 지닌 경기전과 오목대를 행사 거점으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포함하는 오목정, 전주소리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은행나무정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서깊은 문화재,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고루 포진된다.

올해 전주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모티브는 '수작(秀作)'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경관을 무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 경륜과 패기로 똘친 전주의 예술가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시간여행을 펼친다. 전주 자체가 빼어난 작품이 되는 셈이다.

'수작(秀作)'은 빼어난 작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손수 만드는 수공예품을 뜻하는 '수작(手作)'과 차 한 잔을 권하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청유형의 '수작(酬答)'으로 읽히는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다.

달빛기행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청사초롱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즈넉한 경기전의 밤을 비추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색다른 광경이었다.

전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태조 어진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행사 횃수를 지난해 2회에서 5회로 늘려 문화재 야간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개국의 의미를 지닌 경기전과 오목대를 행사 거점으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포함하는 오목정, 전주소리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은행나무정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서깊은 문화재,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고루 포진된다.

올해 전주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모티브는 '수작(秀作)'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경관을 무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 경륜과 패기로 똘친 전주의 예술가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시간여행을 펼친다. 전주 자체가 빼어난 작품이 되는 셈이다.

'수작(秀作)'은 빼어난 작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손수 만드는 수공예품을 뜻하는 '수작(手作)'과 차 한 잔을 권하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청유형의 '수작(酬答)'으로 읽히는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다.

달빛기행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청사초롱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즈넉한 경기전의 밤을 비추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색다른 광경이었다.

전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태조 어진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행사 횃수를 지난해 2회에서 5회로 늘려 문화재 야간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개국의 의미를 지닌 경기전과 오목대를 행사 거점으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포함하는 오목정, 전주소리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은행나무정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서깊은 문화재,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고루 포진된다.

올해 전주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모티브는 '수작(秀作)'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경관을 무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 경륜과 패기로 똘친 전주의 예술가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시간여행을 펼친다. 전주 자체가 빼어난 작품이 되는 셈이다.

'수작(秀作)'은 빼어난 작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손수 만드는 수공예품을 뜻하는 '수작(手作)'과 차 한 잔을 권하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청유형의 '수작(酬答)'으로 읽히는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다.

달빛기행에 참가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청사초롱은 은은한 달빛 아래 고즈넉한 경기전의 밤을 비추며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색다른 광경이었다.

전주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태조 어진을 통해 전주가 조선왕조의 분향임을 알리기 위해 행사 횃수를 지난해 2회에서 5회로 늘려 문화재 야간개방, 공연, 전시, 체험 등의 야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개국의 의미를 지닌 경기전과 오목대를 행사 거점으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포함하는 오목정, 전주소리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 은행나무정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서깊은 문화재,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고루 포진된다.

올해 전주의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모티브는 '수작(秀作)'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경관을 무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무형의 문화유산, 경륜과 패기로 똘친 전주의 예술가들을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시간여행을 펼친다. 전주 자체가 빼어난 작품이 되는 셈이다.

'수작(秀作)'은 빼어난 작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손수 만드는 수공예품을 뜻하는 '수작(手作)'과 차 한 잔을 권하며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청유형의 '수작(酬答)'으로 읽히는 언어적 유희도 담고 있다.

